2012 사순 · 부활 판공문제집

믿음의 문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 세례로 시작되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中–



제1주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창세 9,12)

제2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창세 22,16)

제3주
"거룩하게 지켜라"(탈출 20,8)

제4주
"믿음을 통해 은총으로"(에페 2,8)

제5주
"바로 이 때를 위하여"(요한 12,27)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믿음의 문

권 · 두 · 언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 신비를 묵상하는 은혜로운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나해) 각 주일의 복음과 독서 말씀들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사순 제1주일 복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요한 3,15: 사순 제4주일 복음)을 추구하기 위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들어서야 할 "믿음의 문"(사도 14,27)을 성찰케 합니다.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로마 8,32: 사순 제2주일 2독서) 하느님께서 "가슴에 넣어주고, 새겨주신 법"(예레 31,33: 사순 제5주일 1독서) 곧 "바른 양심"(1베드 3,21: 사순 제1주일 2독서)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에페 2,4-10: 사순 제4주일 2독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요한 12,27: 사순 제5주일 복음).

2012년 부활판공문제집은 이러한 사순 제1~5주일 복음과 독서말씀의 주요 신학적 소재를 교회 가르침 안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 배움터〉를 공부하고 해당 판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문 희 종 요한세례자** 신부(교구 복음화 국장)

2012년 사순 · 부활 판공문제집 **Contents**

사순 제1주간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신앙 배움터 1 …… 1
판공문제 I …… 8

사순 제2주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신앙 배움터 2 …… 10
판공문제 II …… 19

사순 제3주간 "거룩하게 지켜라"
신앙 배움터 3 …… 21
판공문제 III …… 27

사순 제4주간 "믿음을 통해 은총으로"
신앙 배움터 4 …… 30
판공문제 IV …… 34

사순 제5주간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신앙 배움터 5 …… 36
판공문제 V …… 42

부 록
"부활판공 경시대회"를 위한 50문항 …… 44

일 러 두 기

1. 사순시기 매주 판공문제는 10문항씩(총 50문항, 각1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배움터 1~5〉를 공부하고 해당 문제를 풀어갑시다.
2. 본 문제지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각 주간 신앙 배움터에 밝혀두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본당 '판공문제경시대회' 장려를 위해 주간 별 판공문제 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교리문제 50문항(각1점)도 부록에 첨부했습니다. 각 본당에서 전 신자들이 함께 풀어봄으로써, 신앙 재교육의 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총점은 주간 판공문제(50점)와 경시대회 문제(50점)를 합산해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신앙 배움터 I

사순 제1주간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창세 9, 12



사순 **첫 주일의 독서말씀**(제1독서 : 창세 9, 8-15)은 하느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계약을 선포합니다. 이는 창조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던 인류에게 닥친 홍수의 정화기간(창세 7장) 바로 뒷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선택받고, 시련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장차 주 하느님께서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창세 9, 12) 내리실 구원의 약속에 초대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 있을 때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계약에 속한 '미래의 모든 세대들'은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자신 위에 펼쳐지는 하느님 축복을 무지개처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 제1주간 신앙 배움터는 이러한 독서 말씀의 신학적 메시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실천해야할 '의로운 길'을 모색해 봅니다. 이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Ⅰ. 가톨릭 사회교리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지킬 교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 가르침이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믿을 교리, 성사,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지킬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자들

이 개인적인 영성생활이나 기복적인 기도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봉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도록 요구한다.

1. 복음 선포의 핵심

사회교리는 교회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해 왔으며,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생활을 쇄신 발전시키고, 외적으로는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에 있어 핵심이다. 구약성경은 억압에서 해방이라는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탈출을 원체험으로 삼아 십계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사회)와 하느님의 관계를 가르쳤다. 신약성경이 전하는 예수그리스도의 활동은 인간의 구원을 향해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류의 구원을 실현했다.

또한 수많은 교회의 교부와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관점에서 당대의 사회적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삶의 길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법[하느님의 법] 사상은 개인과 사회, 종교와 공공생활, 역사와 자연, 과학과 윤리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연법 사상에 토대를 두고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함 증진의 의무, 인간의 사회 및 정치적 본성, 공공질서와 공공의 평화, 사회정의의 기본 기준과 관련한 공동선 증진의 의무 등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 교리는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 자연법 사상의 전통 그리고 수많은 하느님 백성의 정의와 사랑의 삶을 통해 형성 · 발전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1) 의미 구분

사회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가톨릭 사회교리 혹은 가르침, 가톨릭 사회사상 그리고 가톨릭 사회윤리를 간략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사상'은 당대의 사회적 물음들을 다룸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풍부한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교회의 공적 사회교리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톨릭 사회윤리'는 체계적이며 방법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비판적 성찰과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사회교리와 구별된다. '사회교리 혹은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의 교도권으로 제시한 규범적 성격의 문헌들로 제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num) 이후 일련의 교회 공식 문헌들을 지칭한다.

2) 사회교리 문헌

교회는 국가의 활동, 가정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과정(분화, 상품화, 합리화 등)을 체험했다. 교회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개방적으로든 호교론적으로든, 진보적으로든 보

수적으로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회칙 〈새로운 사태〉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초의 응답이었다고 인정받으며, 바로 이 때문에 사회교리의 첫 문헌으로 꼽힌다.

2. 사회교리의 진화

사회교리는 변화 발전해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회교리를 이야기 한다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공의회를 기점으로 교회의 세상에 대한 태도와 사회교리의 방법론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정치적 무관심의 거부, 참된 인간화와 사회화에 대한 헌신, 세상의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등이 그것이다.

1) 교회와 정치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지니고 있고, 상호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는 정치 조직에 대해 어떤 간섭이나 관할권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76항)고 선언한다.

인간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세울 사명이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81항 참조).

사회교리는 어떤 정치 경제적 체제나 이념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위하여 참된 인간 발전과 인권을 옹호하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해 감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2) 사회교리의 원리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며 인류와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한다. 다음의 사회교리 기본 원리들은 교회 사명 수행의 안내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로 발전하기도 한다.

① 인간 존엄성의 원리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 구원되었고, 성령의 궁전으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인권의 근거가 되며, 이 인권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권리, 경제

적 권리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권리로 그 영역을 분화 발전시키고 있다.

② 공동선의 원리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의 올바른 분배와 이웃사랑의 정신이 필수적이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공동선의 원리는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자연적 본성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권리들이 중요하고 본질적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원리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권리들은 이 공동선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③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은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교회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익 단체 뿐 아니라 인권, 환경, 평화 등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가 커지는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 국가는 이런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되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④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은 사회적 덕목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웃과 자신의 선익을 위해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연대성의 영적인 힘은 이웃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화해하며,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1877~1942항. /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가톨릭대사전』 권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149~156/ 박동호, "사회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기쁨과 희망」(2011.7),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72~8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회 교리 주간 교육 자료」(2011. 11), 2~7.

Ⅱ. 진리안의 사랑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선임자이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발표한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고, 그 길에 새겨진 이정표를 따라 오늘날에 그 가르침을 적용시켜 보고자 2009년 사회교리 회칙 〈진리 안의 사랑〉(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년)을 발표했다.

교황님은 회칙 서문에서 "우리 시대의 위기는 사람들이나 국가들 간 사실상의 상호 의존이 참으로 인간다운 발전을 이루게 해줄, 양심이나 지성의 윤리적 상호 작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하며 "오로지 이성과 신앙의 빛으로 밝혀진 사랑을 통해서만 더 인간적이고 더욱 인간답게 하는 가치를 지닌 발전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9항).

이러한 교황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몇 가지 회칙 조항들을 요약해 살펴본다.



1. 서문(1-9항 참조)

진리는 사랑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이성의 빛이며 또한 신앙의 빛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사랑은 감상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것은 진리가 없는 문화에서 사랑이 부딪히는 파멸의 위험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그리스도교가 있다면, 사회적 결속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차적인 좋은 감정들의 집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성령 안에서 솟아오르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자에게서 우리에게 흘러내려 옵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은 은총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의 그물을 짜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받는 사랑의 역동성이 교회의 사회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관련한 진리 안의 사랑인 사회교리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2. 책임 있게 생명을 받아들이기 (44항 참조)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그들의 인구 규모나 국민들의 자질 덕분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번성했

던 나라들은 다름 아닌 출산율 감소로 현재 불확실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핵가족은 사회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효과적인 연대를 보장하지 못할 위험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도덕의 약화를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들에게 혼인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혼인과 가정 제도가 인간 마음속의 가장 깊은 요구와 존엄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들은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인 가정의 중심성과 온전성을 증진하는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또 가정의 본질인 관계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재정적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맡도록 요청 받습니다.

3.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
(48-52항 참조)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자연을 단순한 우연이나 진화 결정론의 결실로볼 때 책임 의식이 무뎌집니다. 신앙인은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놀라운 결과를 깨달아 책임감 있게 자연을 이용하여 피조물의 본질적 균형을 존중하면서 물질적 욕구든 아니든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자연을 손대서는 안되는 금기로 여기거나 반대로 남용하고 맙니다. 두 자세 모두 자연을 하느님의 창조의 결실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자연관에 위배됩니다.

자연은 사랑과 진리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 앞서 자연을 창조하시어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연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자연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창조주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자연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 15) 데에 필요한 원칙들을 자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연에 내재적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발전에 위배 된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새로운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태도로 이끕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자연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입장도 거부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사람은 에너지 문제들을 올바로 직시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을 책임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고갈된 자원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선진 기술의 도움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자연을 새롭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연이 전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서식처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 (73항 참조)

오늘날 대중 매체 없는 인류 가족의 삶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매체의 순전히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은 시장을 지배하고자 매체를 경제 이익에 종속시키고, 특히 이념적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에 예속시키려는 행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세계화와 발전에 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비추어 매체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매체가 정보 전달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보편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인간관과 공동선을 지향할 때에 인간을 교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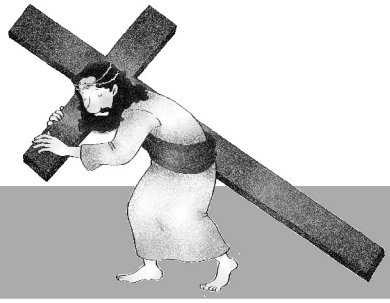
매체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간과 민족들의 존엄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명백히 사랑에서 영향을 받고 진리와 선, 그리고 혈연과 또 혈연을 넘어선 형제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5. 생명윤리(74항 참조)

이 지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강력히 제기되는 근본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속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기술 의존에 사로잡힌 신앙 없는 이성은 스스로 전능하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성 없는 신앙은 일상생활과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양심은 단지 기술의 가능성들에 주목하도록 요청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온한 계획이나 '죽음의 문화'를 조종하는 강력한 새로운 도구들을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위하고 비극적인 재앙인 낙태에 덧붙여, 미래에는 조직적으로 출산의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의 저변에는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문화의 시각이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일은 오늘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임의적이고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창조적 이성으로 빛나는 자연법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 주지만, 우리가 도덕적 진리의 요구를 알아채지 못할 때 인간의 비참함도 보여 줍니다.



1 판공문제

사순 제1주일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1. 사순 첫 주일 제1독서(창세 9, 8–15)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하느님의 계약 ② 하느님의 심판 ③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한 축복 ④ 의로운 삶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편 그리스도의 삶'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 가르침으로 '지킬 교리'에 해당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을 쓰시오.

3. 사회교리의 형성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구약성경은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탈출을 원체험으로 삼아 십계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와 하느님의 관계를 가르쳤다.
②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류의 구원을 실현했다.
③ 교부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당대의 사회적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했다.
④ 신약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활동들은 하느님의 계명 준수와 개인기도 생활이 공동체에 대한 선행보다 우선함을 보여준다.

4. 교회가 인간 존엄함 증진의 의무, 공공질서와 평화, 사회정의의 기본 기준과 관련한 공동선 증진의 의무 등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된 사상을 쓰시오.

5. 다음 중 가톨릭 사회 교리의 효시로 꼽히는 교황 회칙을 고르시오.

①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②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
③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④ 요한 바오로 2세의 〈노동하는 인간〉

6.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②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교회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③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④ 사회교리는 어떤 정치적 체제나 이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참된 인간 발전과 인권을 옹호한다.

7. 사회 교리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 구원된 존재라는 점이다.
② 공동선의 원리는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자연적 본성에 기반을 두기에, 개인의 권리들이 본질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보조성은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교회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④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 한다고 가르친다.

8.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사회 회칙에서 '교회의 사회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을 간단히 쓰시오.

9.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가르치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② 인간을 비롯해 자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진화 결정론의 결실이다.
③ 신앙인은 자연 안에서 하느님 창조활동의 놀라운 결과를 깨달아야 하며,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④ 자연을 인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발전에 위배된다.

10.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가르치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매체의 순전히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배격한다.
② 매체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추구해야 한다.
③ 매체 정보가 정보 전달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때만이 인간을 교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④ 매체가 경제적 이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간과 민족들의 존엄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답안지	1	2	3	4	5
	6	7	8	9	10

신앙 배움터 2

사순 제2주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세 22, 16



사순 **두 번째 주일 독서말씀**(제1독서 : 창세 22, 1-2, 9ㄱ. 10-13 .15-18)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느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창세 22, 1) 하신 말씀인 줄을 본문을 통해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속마음을 알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사악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한마디에 영문도 모른채 장작을 지고 번제를 드릴 산으로 향하고, 마침내 제단에 이르러 양 대신 자신이 "제단 장작 위에 올려"(창세 22, 9)질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夫子의 믿음을 지켜본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을 넘치는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22, 16-17).

사순 제2주간 신앙 배움터는 이러한 독서말씀의 메시지를 교훈 삼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력 있는 '혼인의 성사성'을 되새겨 봅니다.

Ⅲ. 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예수님께서는 당신 구속 사명의 핵심을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고 말씀하신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명의 복음〉 회칙을 통해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1항)이라고 밝히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천주교회 주교단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불가침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하며, 동시에 하

느님의 이름으로 개개인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고자'(생명의 복음, 5항) 2010년 "생명운동 지침서"(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편)를 발간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짚어본다.

1. 생명의 문화를 향해

인간생명은 그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연결되어 신성하며, 그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신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생명의 시초부터 끝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며, 그분께서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지침, 2항).

1) 가정과 혼인(생명운동 지침, 3-4항 참조)

가정은 인간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성역'이다. 따라서 가정의 기본 임무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 곧 "창조주의 첫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모습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가정 공동체, 28항)이다.

특히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성행위는 혼인한 부부가 육체를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행위와 출산을 분리하여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성의 남용은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로 말미암은 낙태 그리고 미혼모 발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는 성행위가 혼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부부사랑의 표현과 자녀 출산의 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목자와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에게 성과 생명에 관한 교회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한다.

2) 인간 생명(생명운동 지침, 5-7항 참조)

1985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라고 확인한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따라서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순간부터 그가 한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생명의 복음, 60항). 그럼에도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곧 배아연구, 인공임신 등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이 인간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유는 '자신'과 '물질'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 인간 생명을 침해하고 빼앗는 행위의 뿌리에는 '힘의 논리'와 '왜곡된 자유'가 있다. 인간생명을 침해하는 더욱 근원적인 이유는 '하느님 의식의 실종'이다. 하느님 의식이 실종될 때, 인간의식, 곧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의식도 사라진다. 이것은 하느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혼돈의 뿌리이다.

3) 중요한 문제들(생명운동 지침, 8-12항 참조)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에서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으로써 지극히 부도덕한 악행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단기간의 경제 개발 효과를 얻고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겨냥하여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는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모자 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수많은 태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역시 많은 여성들이 낙태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최근에 정부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 15-19)고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과 불행 그리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행복 그리고 축복의 길이다. 우리 모두 생명의 문화를 향해 생명의 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하겠다.

2.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삶 전체에 걸쳐 하느님을 찾고 갈망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격체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 생명은 '카인의 아벨 살해'(창세 4, 8)처럼 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 생명을 도구로 하는 생명과학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의 생명이 무수히 위협받고 있다(생명운동 지침, 13-15항 참조).

1) 인공 피임과 자연적 출산 조절 (생명운동 지침, 16-19항 참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남녀 사이의 성 개방 풍조와 부부들의 지나친 피임에서 비롯한 가정의 위기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비윤리적 인공 피임과 낙태의 성행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생명 경시 풍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공 피임과 낙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의 〈인간 생명〉 회칙에 잘 정리되어 있다. 회칙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부부애와 부모의 책임 그리고 부부 행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출산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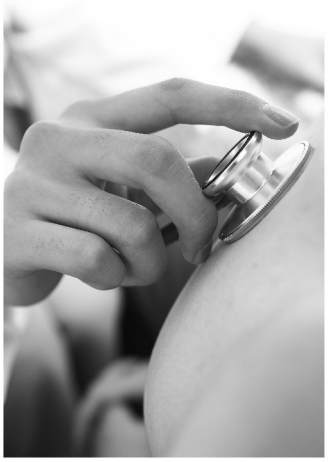
특히 인공피임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칙은 출산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적 출산 조절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한편 교회는 '태아 진단'에 대해서도 윤리적 지침을 제시한다. 태아 진단이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 태아의 性이나 기형 유무를 알려고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관찰하거나, 자궁 속의 양수에서 염색체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의학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이 태아의 질병을 일찍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교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의 성이나 기형 여부 결과에 따라 낙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전 진단을 하거나 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임을 교회는 분명히 하고 있다.

2) 체외 수정(생명운동 지침, 24-25항 참조)

체외 수정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



다. 체외 수정을 통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난소에서 배란되기 전의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 안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비배우자간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 간이라도 체외 수정을 반대한다.

첫째, 인공 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키고, 그에 따른 자녀는 부부의 온전하고 전적인 증여를 통한 인간 행위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기 보다는 '기술 행위의 산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생명을 더 이상 하느님의 선물로서, 존중해야 할 신성한 선물로서 여기지 않게 되고, 생명 그 자체는 통제와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

둘째, 인공 수정 즉 체외 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선택됨으

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와 낙태가 초래된다. '잉여 배아' 라고 불리는 남은 배아들은 냉동 처리된 다음, 파괴되거나 배아 줄기세포연구 등의 실험 재료로 사용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출산에 있어서 모든 수단과 의료적 개입은, 부부 행위를 촉진시키고 본래의 혼인 목적인 일치와 출산에 도움을 주는 한 타당한 것이기는 하나, 출산을 위한 기술이 결코 부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공 수정에 따른 '시험관 아기 시술'은 그 자체로,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를 반대한다.

3) 장기기증(생명운동 지침, 30항; 35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영웅적인 나눔의 행위 가운데,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라고 천명하셨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이 일이 생명 그 자체를 거스르지 않도록 실천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윤리적인 고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일인데, 교회는 장기 매매의 가능성과 후유증 등을 이유로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자발적 기증을 하는 경우라도 적출할 장기가 기증자에게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뇌사 때에 시신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이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뇌사 판정이다. 의학적으로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면 장기들을 적출하고 이를 이식하는 일은 합법적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3. 생명운동 지침

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지침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명수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권고한다.

1) 기도와 전례(생명운동 지침, 38-40항 참조)

기도와 전례가 지닌 '상징과 의식'의 힘은,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타인들 안에 관상적인 시각'을 길러 주고, '깊은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생명의 복음 83항).

관상적인 시각을 갖는 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며, 고통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 이들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은 특히 기도와 단식이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첫 번째이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기도하고 단식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 그리고 강한 의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온갖 잘못된 관습들과 법들이 지니고 있는 '거짓과 기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2) 교육과 홍보(생명운동 지침, 42-45항 참조)

생명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자들에게는 성경과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성,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므로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안에서 서로 돕고, 특히 약한 생명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3) 법률과 정책

세 번째는 법률과 정책을 통한 생명 수호와 지원이다.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공동선을 우선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생명 수호에 역행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을 촉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

Ⅳ. 몸의 신학으로의 초대

이번 신앙 배움터의 주제는 몸과 혼인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르침인 〈몸의 신학〉이다.

'몸의 신학'(Theology of the body)은 인간 몸에 대해 '믿어야할 교리'는 아니지만 교회 교도권자의 '인간 몸에 관한 신적인 해석학'이다. 이 문헌은 1979년 9월 5일부터 1984년 11월 28일까지 4년 넘게 교황님께서 행하신 129개의 일반 알현 연설 모음에다, 미처 연설하지 못하신 것 6개를 더 발굴해 모은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한 교황님의 신학적 목표는, 선임자이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생명〉을 방어할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며, 더 넓게는 "몸의 구속과 혼인의 성사성"이라는 제목을 손수 붙일 정도로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헌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행하는 〈경향잡지〉 2010년 1월~12월호에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인 이동호 프란치스코 신부의 해설**로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살펴본다.

1. 혼인의 본래적 모습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혼인의 본래 모습을 창세기의 "처음"에서 제시해 주신다.(마태 19, 3-8)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근거로 창세기의 "처음"에다 두 번씩이나 호소하셨음에 주목하신다.

그 "처음"의 요소는 첫째, "창조주께서는 그

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 1, 27)는 것, 둘째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1, 27)는 것, 그리고 셋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2, 24)는 것 세 가지이다.

여기에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계명적인 의미 속에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송의 규정에 관한 '영원법'의 근거가 있음을 교황님은 밝혀주신다.

1) 원초적 '고독'과 '단일성'

교황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창세 2, 18)라는 선언에도 주목한다.

이 성경 전승에서는 '혼자 있어 좋지 않은' 인간의 고독이 이중적인 의미로 인간을 정의해 주는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흙을 일구고"(창세 2, 5) "동산을 돌보며"(2, 15)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그 협력자의 부재에 대한 고독이 그 첫 번째의 의미이다.

두 번째 의미는 性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사물, 동 · 식물과는 다른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성 자체가 겪는 고독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창세 1, 26)존재,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들의 차이점도 인식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 게다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금령을 지켜서 생명을 선택할 수도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2, 17)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정의된다.

"둘이 한 몸이 되기"(창세 2, 24; 마태 19, 5)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고독을 통해 먼저 이중적인 性성의 구조를 인식하고 협력자의 출현을 기다리게 되는데, 교황님께서는 '잠'을 주목하신다. 잠에서 깨어난 인간은 '남성'으로 '여성'으로 각각 눈을 뜨게 되며,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닮음'이 주는 기쁨의 탄성이 바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창세 2, 23)인 것이다. 그렇게 알아본 '알맞은 협력자' 자기 아내와는 몸으로 '인격들의 친교'를 긴밀하게 나누고 성적으로 자기를 증여하는 '온전한 혼인 행위'를 통해 비로소 '한 몸'을 이룬다.

교황님께서는 이때, 신성한 '위격들의 친교'를 누리시는 하느님 '모습의 닮음'이 실현된다고 보신다.

2) 원초적 '알몸'

교황님께서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 25)라는 상태는, 온전한 자기 인격을 '사심 없이' 자신과 같은 동종성을 지닌 배우자 앞에 드러낸,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된 알몸'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신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에 대한 불순종, 곧 하느님의 창조적 의지 전반에 대한 존경심의 결핍으로 충만하던 알몸이 부끄러움으로 결핍되게 되었다. 즉,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았다"(창세 3, 7). 그러나 이는 거꾸로, 그런 금령에 다시 순종하고 하느님의 창조적 의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다시 '부끄럽지 않은 알몸'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처음'의 원초적 결백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도 뜻한다.

교황님께서는 이 알몸에 대한 '앎'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외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변화'의 차원으로 보신다. 곧, 창조주의 시선처럼 피조물인 알몸과 그 性을 평화로운 '내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원 말이다. 그리하여 교황님께서는 몸으로 된 남성과 여성의 상호적인 보완성에 대한 앎과 몸으로 된 인격들의 공동체적인 친교의 나눔 그리고 자기를 전달하는 것을 몸의 "혼인적인 의미"라고 칭하신다.

2. 선물로서의 몸

교황님께서는 창세기의 "처음" 속에서 인간의 본질 요소인 고독, 단일성, 알몸에 대한 원초적 의미를 읽어내시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것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해 줄 '몸의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신다.

먼저, 세상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와 '창조주' 두 단어의 관계에 주목하신다. 그 안에서 교황님은 '선물로 내어주시는' 창조주의 의미도 읽어내신다. 그분이 "사랑이시기"(1요한 4, 8) 때문에 창조주의 행위는 '내어줌'의 행위라는 점, 비록 명백한 언급은 없지만 자주 반복되는 "하느님께서 보시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 31)라는 말씀 속에서 '사랑'으로 된 창조의 신성한 동기가 있음을 밝혀내신다.

1) 내어줌

'내어줌'의 개념은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바, 세상은 인간에게 선물이며 인간도 세상에게는 축복된 선물이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고독'하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창세 2, 18) "알맞은 협력자"(2, 20)를 '선물'로서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혼자'에게는 '협력자'라는 선물이, 협력자에게는 '혼자'라는 선물이 서로 되어줌으로써 '원초적 고독감'에서 충족된다는 것이다.

이 충족감은 축복이며 행복이기에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 23)라는 탄성과 함께 여성을 만난 남성의 기쁨, 남성을 만난 여성의 기쁨이 그 절정을 드러내게 된다.

교황님은 이 탄성을 "몸(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생명체)이 되었다"(창세 2, 7)는 말씀을 바탕으로, '보라. 인격을 표현해 주는 몸을!'이라고 재해석해 주신다.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의 몸은 인격적 실존의 친교가 되어주며 하느님 사랑의 증거가 된다. 이로써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 24)는 말씀 속에서 '몸의 혼인적 성격', 즉 부부-부모의 생활을 통해 "한 몸"을 향해 기

울어지는 '단일적인' 의미와 "다산"의 축복(창세 1, 28)을 누리는 '출산적'인 의미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2) '앎과 낳음'

교황님께서는 셈족의 용어 '야다'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자기 아내와 결합[잠자리를 같이] 했다"(창세 4, 1)는 말씀을 "자기 아내를 알았다"로 해석해 주신다. 성모 영보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루카 1, 34) 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 앎의 의미가 반복되고 있기에, 성경 언어의 빈곤한 표현력에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아주 밀접하게 '결합'하는 상황을 '앎'으로 정확히 읽어내신다.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앎을 통해 인간적인 '자아'는 상대방의 性에게 '주어지며 알려지기'에, 완결된 혼인 행위를 통해 여성성은 자기 몸의 모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은 자기 몸의 부성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앎'은 '낳음'의 조건이 되며, 상대 배우자를 앎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어"(창세 4, 1) 새로운 인간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제삼자를 통해 상대방을 더 깊게 알게 된다.

그리하여 비록 인간의 몸은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앎-낳음'의 순환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행위를 계속해서 닮아가고 쇄신해 가게 된다.

3. 혼인의 성사성

교황님의 단언에 따르면, 부부의 혼인 행위가 하느님 '삼위의 친교'를 드러내주는 '원초적인 한 몸'의 일치 신비를 드러내주기에, 혼인의 행위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성사'이다.

곧 혼인이라는 '창조의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처음"의 상태보다는 더 좋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격되는데, 이는 "처음"의 원초적인 결백보다 더 좋은 '첫 번째 아담' 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태'이며,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를 통한 '새로운 창조', 곧 부활의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신비"에 걸맞는 새로운 사랑(에토스)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상호순종

교황님은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에페 5, 22)라는 지침 속에서도 혼인의 고유한 '상호 인격적 계약'을 읽어내신다. 왜냐하면 곧바로 "남편은 …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 25)라는 지침이 남편에게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호 예속되고 서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페 5, 21)에 근거한다.

교황님에 따르면, 이 경외심은 악의 위협 앞에서 가지는 방어적인 태도로서 '두려움'이 아니다. '거룩한 것을 존중함'이기에, 구약의 언어로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에 해당한다. 그런 '상호 예속성'은 성령칠은 중 '효경'에서 나오며 '상호적인 자기증여 사랑' 행위로 특히 부부에게는 '한 몸'이되기 위한 '온 몸'의 행위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2 판공문제

사순 제2주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1. 사순 두 번째 주일 제1독서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아브라함의 순종 ② 하느님의 시험 ③ 이사악의 효심 ④ 생명의 축복

2. 「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지침」의 토대가 되고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불가침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은 무엇인지 쓰시오.

3. 인간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성역'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가정의 기본 임무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다.
② 가정의 임무는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모습을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③ 혼인한 부부가 육체를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행위의 본질적 목적은 부부사이의 사랑 확인이다.
④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과 생명에 관한 교회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지침」이 설명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태어난 때부터 시작" 된다.
②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③ 배아연구, 인공임신 등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성이라는 이유 안에서 정당화 된다.
④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 인정되고, 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5. '인공피임'과 '출산'에 대한 교회 가르침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 태아에 대한 어떠한 의료적 진단을 교회는 반대한다.
② 출산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출산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인공피임 방법 대신 '자연적 출산 조절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태아의 성이나 기형 여부의 결과에 따라 낙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전 진단을 하거나 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다.

6.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효과를 얻고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겨냥해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시작하며, 1973년에 제정해 수많은 낙태를 용인케 한 법을 쓰시오.

7. 교회가 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인공수정은 부부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기보다는 '기술 행위의 산물'이다.
② 체외수정은 생명 그 자체를 통제와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③ 체외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선택됨으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 초래.
④ '시험관 아기 시술'은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돕는 것이다.

8.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몸의 신학〉에서 말씀하신 '원초적 알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 25)라는 상태는, 온전한 자기 인격을 '사심 없이' 배우자 앞에 드러낸 '두려움 없게 된 알몸'을 의미한다.
② 원죄로 인해 부끄러움으로 결핍된 '알몸'은 처음의 원초적 결백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③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충만하던 알몸이 부끄러움으로 결핍되었다.
④ '알몸'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외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의 시선처럼 상대방의 몸과 성(性)을 평화로운 '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9. 〈몸의 신학〉이 설명하는 '선물로서의 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남성성과 여성성의 몸은 인격적 실존의 친교가 되어주며 하느님 사랑의 증거가 된다.
② 세상은 인간에게 선물이며 인간도 세상에게는 축복된 선물이다.
③ 여성성의 몸은 그 홀로 다산의 축복을 누리는 '출산적 의미'를 확인시켜 준다.
④ 사람은 '고독'하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알맞은 협력자를 선물로 필요로 한다.

10. 〈몸의 신학〉이 설명하는 '혼인의 성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부의 혼인 행위가 하느님 '삼위의 친교'를 드러내주는 '원초적인 한 몸'의 일치 신비를 드러낸다.
②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에페 5, 22) 라는 지침 속에 혼인의 '상호 인격적 계약'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③ 혼인성사를 통해 '처음'의 상태보다 더 좋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격된다.
④ 혼인한 몸은 '새로운 상태'이며, 부활의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는 것이다.

답안지	1	2	3	4	5
	6	7	8	9	10

신앙 배움터 3

사순 제3주간



사순 **세 번째 주일 독서말씀**(제1독서 : 탈출 20, 1-17)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할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이 계명은 절대적인 신법(神法)으로서 오늘날에도 항구히 그리스도교 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중요한 윤리 · 도덕적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 3개의 계명은 하느님과 직접 관련되며, 후반부 7개의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진 각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없는 이웃사랑은 빨리 지치며 변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웃 없는 하느님 사랑은 고독하며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두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성숙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라"**(탈출 20, 8)고 명하신 '주일'(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길 때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이웃 안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V. 주님의 날

오늘날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결별하게 된 2세기 중반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을 '주일'이라 해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을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대체한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간을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주간을 여는 첫날로서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열린 새 시대를 기념하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안식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로, 주 하느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바빌론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을 휴일로 지내는 것과 종교 의식으로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제의(聖殿祭儀)가 사라지게 된 유배시기에 이르러 안식일의 성격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된다. 이 날은 하느님의 계약과 연관되어 칠일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날로 지내게 된 것이다(레위 19, 3; 23, 3).

1) 구약성경에서 안식일 의미

구약성경은 안식일을 하느님이 직접 정한 규범이며 선물이라고 명확히 밝힌다(창세 2, 2-3; 탈출 16, 22-30). 특히 이스라엘의 근본 계약 규범인 십계명에서 안식일 준수를 세 번째 계명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층 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약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번 등장하는데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구속 활동을 기억하며, 일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로 안식일을 규정했다(신명 5, 14-15 참조).

반면 탈출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제정의 동기는 하느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쉼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출애 20, 11 참조).

즉, 하느님은 6일 간의 창조 활동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른 6일과 구분된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 즉 해방과 창조,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차원과 종교적 차원이 계약과 연관되어 안식일에 함께 공유된다.

결국, 안식일은 결코 법률적이고 의례적이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주 하느님께 바친 귀한 날'이다(이사 58, 13-14 참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멈추어 생명을 거저 주신 하느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계약의 주님과 관계를 계속 살아 있게 하는 표시이다.

2) 신약에서의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루카 4, 16; 마르 1, 21 참조).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할라카)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쉼과 기쁨을 주기 위해 창조 때 마련하신 날이 안식일이므로, 이웃 사랑이 금지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본연의 의미를 밝히신다. 나아가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낸다(마르 2, 28; 마태 12, 8 참조).

따라서 그분이 안식일에, 임박한 생명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선언인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느님 주권의 날임을 밝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교의 주일

오늘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일을 단지 한 주간의 휴식일로만 여기고, 신자들의 신앙이 약화되어 주일 미사 참여가 저조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신자들이 '주일의 참된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예견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의 흐름을 성찰하며 주일의 의미를 새로운 열정으로 재발견하도록" 간곡히 권고하는 '사도적 서한' 〈주님의 날〉(Dies Domini 1998년)을 발표하신 바 있다.

1) 주님의 날(8-18항 참조)

교황님은 이 서한 제1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에서 주일은 하느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을 경축하는 날임을 강조하고, 주님의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주일이 된 까닭에 대해 설명한다.

하느님께는 주간의 하루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날들이 그분의 것인데, 이렛날을 특별한 축복으로 거룩하게 해 당신의 날로 만들었다. 교황님은 그 이유가, 인간이 주간의 숨막히는 업무에서 벗어나 하루를 쉬면서 우주와 역사가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피조물의 목소리가 되어 기도를 바치도록 사랑으로 배려하신 것이라고 저적하신다.

또 교황님은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기억하는 데 근본적으로 달려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결정적인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을 축일로 삼았다고 설명하신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날이며, 이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창조의 완성을 표현하던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상기시키는 안식일 다음 첫째 날로, 이렛날에서 첫날로 옮겨졌다. 이제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날(19-30항 참조)

교황님은 제2장에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간의 첫날, 새로운 창조의 날, 빛이신 그리스도의 날, 신앙의 날임을 강조한다. 교황님은 여기서 주일은 한 주간의 부활 축일이요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주 이 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구원의 참된 원천인 부활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다짐할 것을 권고하신다.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사상은 주간의 첫날 일어난 부활과 빛이 창조된 천지창조의 첫날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부활을 새

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바로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시며"(콜로 1, 15) "죽은 이들 가운에서 맏이이신"(콜로 1, 18) 그리스도로 본다.

또한 교황님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주일은 첫 날일 뿐만 아니라, 이레씩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의 시작이고 미래의 종말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초월적 위치에 있는 여드렛날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 주일은 끝이 없는 날, 영원한 시대를 상징한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교황님은 주일이 '신앙의 날'이라고 지적한다. 부활한 주님의 첫 발현이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에 재현되고, 신자들은 마치 토마 사도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오"(요한 20, 27)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 이에 주일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3) 교회의 날(31-54장 참조)

제3장에서 교황님은 주일 거행의 공동체적 요소와 성찬례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즉, 주님의 현존을 합당하게 선포하고 생활에 옮기려면, 신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저녁 사도들의 체험을 다시 맛보며 성찬례를 거행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며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일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교회의 날'이기도 하다.

또한 주일의 성찬례 거행을 통해 교회는 신자들이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복음 선포와 사랑 실천을 통해 노력하는 증거 생활의 대단원을 이루어 주며, 하느님과의 일치와 전 인류의 일치를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말씀의 식탁과 생명의 식탁에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성찬례 거행과 일상생활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교황님은 사제와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주중에 모여 미리 다음 주일의 하느님 말씀을 성찰하면서, 그 주일 전례의 주제에 맞게 강론뿐만 아니라 기도, 듣기, 성가 등 본당 차원에서 전례를 준비하는 활동들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나아가 주일의 성찬례는 형제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행해야 하며, 이는 성당 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미사가 끝난 다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 뵌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

한편 교황님은 사제가 없어서 성찬례 거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교황청이 마련하여 주교회의에 실행하도록 맡긴 규정에 따라 주일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신자들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미사 실황 중계방송이 주일 의무를 채워 줄 수는 없다고 밝히신다.



Ⅵ. 주님의 성전(聖殿)

사순 3주일 복음(요한 2, 13-22)은 파스카 축일을 앞두고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 전한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전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 선포하신다. 바로 "당신 몸"으로서의 성전이 그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2, 19). 미사 때 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몸. 그 역시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임에 틀림없다.

한편 교회는 사순시기를 통해 자신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튼튼히 가꾸어 나갈 것을 배려한다. 즉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절제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전'(聖殿)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워보자.

1.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에 대해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그분의 입장에서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며 당신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흥정의 장소로 변해 버린 것을 보고 분개하였으며,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성전을 정화시키키 위해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쫓아냈던 것이다(마태 21, 12-17; 요한 2, 16-18).

또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2, 19)라고 선언했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러한 선언 다음에 "예수께서는 당신 몸이 곧 성전임



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당신이 이렇게 말씀 하시던 것을 상기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요한 2, 21-22)라고 덧붙였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파괴 선언 때문에 고발되었으며,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임할 때도 같은 고발로 모욕을 당했다(마태 27, 39-40). 그분이 숨을 거둘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의 성스러운 성격이 이미 상실되었고, 유대교의 성전이 하느님 현존의 표지로서 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게 됨을 의미한다.

사도 바오로도 이러한 새로운 영적 성전을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모퉁잇돌이요 머리이며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지은 교회가 하느님의 성전이다(에페 2, 14-22). 각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몸에 딸린 지체로서 하느님의 성전이며(1코린 6, 5; 12, 27), 성령의 궁전이다.

2. 성당

영어로 '교회 혹은 성당'을 뜻하는 '처치(church)라는 단어는 '주님의 집' 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퀴리아콘'(κυριακόν)에서 유래된 말이다. 또한 이 말은 하느님의 백성 또는 '지역교회'를 뜻하는 동시에 '성당건물'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당은 가톨릭 신자들만 모이는 '천주교의 교회당'으로 인식되었고, 교회는 개신교 신자들이 모이는 건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올바른 용어구분은 다음과 같다.

즉 교회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성당은 '건축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성당은 품위와 지위, 특성 등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우선 '대성전'(basilica)이다. 이는 교황에 의해 특전이 부여되어 있는 성전으로 역사적 · 예술적 ·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성당에만 붙여지는 칭호이다. 다음으로 '주교좌 성당'(ecclesia cathedralis)이 있다. 이는 교구장 주교의 교좌를 고정적으로 두고 있는 성당을 말한다. 끝으로 앞서 설명한 '본당'이다.

※ 성당 명의와 주보성인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名義)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교회법 1218조). 성당의 명의로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거룩한 칭호로서 전례상으로 이미 사용되는 것, 성령, 전례상으로 상용되는 성모 마리아의 칭호, 천사들이나 『로마 순교록』이나 그 부록에 수록된 성인들의 이름이 사용될 수 있다(유럽 교회에서 일반적이다). 하지만 복자의 이름은 교황청의 허락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

성당의 명의가 어떤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을 그 성당의 주보성인으로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당 명의(명칭)를 지역명으로 호칭하고, 주보성인을 따로 선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X. Leon Dufour ed., 『成書神學事典』, 광주가톨릭대학교전망편집부, 1984, 293~294/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가톨릭대사전』 권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774~4778/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3 사순 제3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판공문제

1. 사순 세 번째 주일 제1독서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십계명
②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
③ 그리스도인 윤리의 잣대
④ 질투의 하느님

2.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인간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정신을 간단히 쓰시오.

3.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스도교의 '주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을 '주일'이라 이름 붙였다.
② 주일은 안식일을 그대로 계승하여 대체한 날이다.
③ 주일은 주간을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주간을 여는 첫날로서, 안식일의 창조적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다.
④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찬미드리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 속에 녹아 있다.

4.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 날은 하느님의 계약과 연관되어 칠일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날이다.
② 안식일은 결코 법률적이고 의례적이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주 하느님께 바친 귀한 날'이다.
③ 탈출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제정의 동기는, 이집트의 억압에서 고통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구속활동 전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④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거저 주신 하느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계약의 주님과 관계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표시다.

5. 신약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쉼과 기쁨을 주기 위해 창조 때 마련하신 날이 안식일이므로, 휴식이 자선활동보다 우선한다.
②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③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금지 규정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④ 예수님이 안식일에 펼치는 치유활동은,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선언이다.

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사도적 서한 〈주님의 날〉에서, '주님의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에서 그리스도의 주일이 된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하느님께는 주간의 하루, 특히 이렛날이 당신께 속한 날이므로 축복하여 거룩한 당신의 날로 만들었다.
②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기억하는데 달려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축일로 삼았다.
③ 첫째 창조의 완성을 표현하던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상기시키는 안식일 다음 첫째 날로 옮겨져 "주님의 날"이 되었다.
④ 안식일은 유대교의 전통이므로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는 새로운 축일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대체했다.

7. 다음 빈 칸에 들어날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쓴 것을 고르시오?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사상은 주간의 첫날 일어난 (　　) 이 창조된 천지 창조의 첫날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부활을 (　　)의 시작으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바로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시며"(콜로 1, 15) "죽은 이들 가운에서 맏이이신"(콜로 1, 18) (　　)로 본다.

① 어둠과 빛 – 구원 – 그리스도
② 부활과 빛 – 새로운 창조 – 그리스도
③ 부활과 빛 – 구원 – 아담
④ 하늘과 땅 – 새로운 창조 – 아담

9. '교회의 날'로서 주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 날에는 주일 거행의 공동체적 요소와 성찬례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일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이날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신자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미사 실황 중계방송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이날 교회는 복음 선포와 사랑 실천을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 나아가 인류의 일치를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④ 이날 주일의 성찬례는 형제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행해야 하며, 미사가 끝난 다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 뵌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

8. 성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바르게 서술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자주 못 마땅히 여겨 파괴를 예고하셨다.

② 예수님께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며 당신 아버지의 집이었다.

③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끔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하셨다.

④ 예수님은 예언자적 행동으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

10. 성당 명의와 주보성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名義)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복자의 이름은 교황청의 허락 없이는 성당 명의로 사용될 수 없다.

③ 성당 명의(명칭)가 어떤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을 그 성당에 주보 성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당 명칭을 주보 성인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명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답안지	1	2	3	4	5
	6	7	8	9	10

신앙 배움터 4

사순 제4주간



사순 넷째 주일 제2독서(에페 2, 4-10)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에페 2, 4)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2, 7)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에페 2, 8) 비로소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믿음에는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신" 그 참사랑을 본받는 실천이 뒤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요한 3, 15-16 참조 : 사순 4주일 복음). 사순 제5주간 신앙 배움터에서는 이러한 복음과 독서 말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믿음'(신앙)에 대해 성찰해 봅시다.

Ⅶ. '신앙의 해' 선포와 『믿음의 문』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셨다.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해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끝나게 된다.

교황님은 신앙의 해 시행 1년을 앞둔 지난해 10월, 그 취지와 의의를 담은 '자의 교서' 〈믿음의 문〉을 발표했다. 교서는 믿음의 가치가 위협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

정을 북돋아 주고,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 "믿음의 문"(사도 14, 27)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으로,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세례로 시작되고(로마 6, 4 참조),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목적지에 이릅니다(1항).

우리는 소금이 제 맛을 잃거나 등불이 감추어지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마태 5, 13-16 참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샘솟는 살아 있는 물을 길어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요한 4, 14 참조).

2. 교회의 쇄신은 또한 신자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기에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며(1코린 11, 26 참조), 세상의 박해와 하느님의 위안 속에서 나그넷길을 걷습니다(6항).

이러한 전망에서,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한 삶의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십니다(사도 5, 31 참조).

바오로 사도는 이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로마 6, 4 참조). 신앙을 통하여 이 새로운 삶은 부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실재에 따라 인간의 존재 전체를 형성합니다. 이 생애에서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 여정 중에서도, 인간이 자유 의지로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그의 생각과 정서와 사고방식과 행동은 차츰차츰 정화되고 변화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 6)이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사유와 행동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6항; 로마 12, 2; 콜로 3, 9-10; 에페 4, 20-29; 2코린 5, 17 참조).

3.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어 모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어 늘 새로운 명령으로 교회에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

기십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기쁨과 신앙 전수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더욱 힘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재발견하면서, 신자들의 선교 노력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 힘과 열정을 얻습니다. 사랑 받은 경험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은총과 기쁨의 경험으로 믿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7항).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신앙은 오로지 믿으면서 자라고 더욱 강해집니다. 하느님에게서 생겨난 것이기에 끊임없이 날로 자라는 사랑의 손길에 더욱더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7항).

특히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도우려면, 신앙에 대하여 더욱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8항).

4.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 10).

여기서 마음은 신앙에 이르도록 해 준 첫째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의 활동이며, 이는 그 사람을 내면 깊숙이 움직이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루카 성인은, 믿어야 할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인 마음이 은총으로 열려 깊이 바라보는 눈을 지니고, 선포된 내용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10항; 사도 16, 14 참조).

또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공적인 증언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을 사적인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신앙이 자유로운 행위이기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우리의 증언이 솔직하고 담대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입니다(10항).

5.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 2) 예수 그리스도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사랑의 기쁨, 고통과 아픔의 사건에 대한 해답, 공격을 받고도 이를 용서하는 힘, 죽음의 공허에 대한 생명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곧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인간적 약점에 함께 하시고 당신 부활의 힘을 통하여 이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이어진 우리의 구원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모범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순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예고를 믿으셨습니다(루카 1, 38 참조).

믿음으로,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스승을 따랐습니다(마르 10, 28 참조).

믿음으로, 제자들은 첫 공동체를 이루어 사

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찬례를 거행하고 가진 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사도 2, 42-47 참조).

믿음으로, 순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적인 단순함 속에 순명과 청빈과 정결의 삶을 살고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묵시 7, 9; 13, 8 참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고백해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13항).

6. 신앙의 해, 힘차게 사랑을 증언하는 좋은 기회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 13). 야고보 사도는 더욱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14항).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야고 2, 14-18).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 주면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라는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당부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사랑을 되돌려 주라는 영원한 초대입니다(1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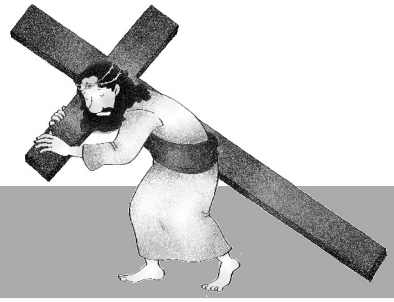
7. 신앙은 …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현재의 역사 안에서 이 시대의 표징을 바라보도록,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주님 현존의 살아있는 표징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특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 마음과 정신을 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고독 속에 살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느님의 침묵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시련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도록 해 주며(콜로 1, 24 참조), 또한 신앙이 이끄는 기쁨과 희망의 서광이 됩니다.

4 판공문제

사순 제4주일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1. 사순 넷째 주일 제2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하느님의 자비
② 하느님 무상의 은총
③ 믿음과 실천
④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2.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시면서, 그 취지와 의의를 담아 발표하신 '자의 교서'의 제목을 쓰시오.

3. 신앙의 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① 2012년 재의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②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③ 2012년 부활대축일부터 2013년 재의 수요일 전까지
④ 2012년 대림시기부터 2013년 그리스도왕 대추일까지

4.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믿음의 문"(사도 14, 27)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 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으로,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간다.
②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③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신앙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④ 이 문에 들어선 신앙 여정은 세례로 시작되고, 성체성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5. 교서 〈믿음의 문〉이 말하는 '교회의 쇄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교회의 쇄신은 신자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언제나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의 과정 없이 끊임없이 발전한다.
③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며, 세상의 박해와 하느님의 위안 속에서 나그넷길을 걷는다.
④ 교회 안에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은총에 자유 의지로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그의 생각과 정서와 사고방식과 행동은 차츰 정화되고 변화된다.

6.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믿음의 문〉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갈라 5장)을 인용하시며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사유와 행동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

7.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믿음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솔직하고 담대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총이다.
② 믿어야할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인 마음이 은총으로 열려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자유로운 행위에 속하기에 믿음을 사적인 행위로도 생각할 수 있다.
④ 믿어야 할 내용을 '입으로 고백한 다는 것'은 신앙이 공적인 증언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믿음으로, (8.)께서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순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예고를 믿으셨습니다(루카 1, 38 참조).
믿음으로, 제자들은 첫 공동체를 이루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찬례를 거행하고 가진 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사도 2, 42-47 참조).
믿음으로, (9.)들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10. 믿음과 행동(실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하다.
②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 주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③ 바오로 사도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되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④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실천이 믿음에 앞선다'고 말했다.

답안지	1	2	3	4	5
	6	7	8	9	10

신앙 배움터 5

사순 제5주간



교회 전례는 전통적으로 사순시기의 정점인 사순 제5주일 독서와 복음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파스카'(새로운 삶으로 건너감)를 희망합니다.

제1독서(예레 31, 31-34)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기원전 587년)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나이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거듭된 잘못을 저질러 성전 붕괴와 유배라는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전에 저지른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계약"**(예레 31, 31)을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이 계약은 '돌 판'에 새겨진 이전 계약과 달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다시는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계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 새로운 파스카 신비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히브 5, 9 : 제2독서). 그분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요한 12, 23 : 복음). 이러한 말씀의 주제들을 토대로, 사순 제5주간 신앙 배움터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학'과 '성주간 전례' 대해 공부합니다.

Ⅷ. 히브리서의 신학

1. 서간의 저자와 구조

신약성경에 속한 13편의 바오로 서간과 다른 가톨릭 서간 사이에 있는 편지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편지를 사도 바오로가 쓴 것으로 여겨 정경으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역사상 이 편지의 집필시기와 장소 그리고 문체를 연구한 다양한 학설에 따르면, 바오로의 친저성에 반대되는 논거는 많다. 20세기 초 이에 관한 논쟁이 한창일 때,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히브리서가 바오로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편집 자체는 바오로 사도의 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하였다.

1) **첫 단원**(1, 5-2, 18)에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의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서(1, 5-14),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2, 5-18)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2, 17).

2) **둘째 단원**(3, 1-5, 10)에서는 모든 사제직의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곧 하느님께 신임을 받은 사제이시며(3, 1-6) 모든 사람들과 굳게 결속된 자비로운 사제이시다(4, 14-5, 10).

3) **셋째 단원**(5, 11-10, 39)에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지니는 여러 특성을 밝힌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대사제이시다(7, 1-28).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은 구약의 제의(祭儀)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러한 희생을 통해 그분께서는 참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셨다(8, 1-9, 28).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옛 사제직과 옛 율법과 옛 계약이 종말을 고한다.

4) **넷째 단원**(11, 1-12, 3)에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열린 길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려고 영성생활의 두 가지 근본적인 면을 강조한다. 바로 선조들의 모범에 따른 믿음(11, 1-40)과 그에 따른 인내이다(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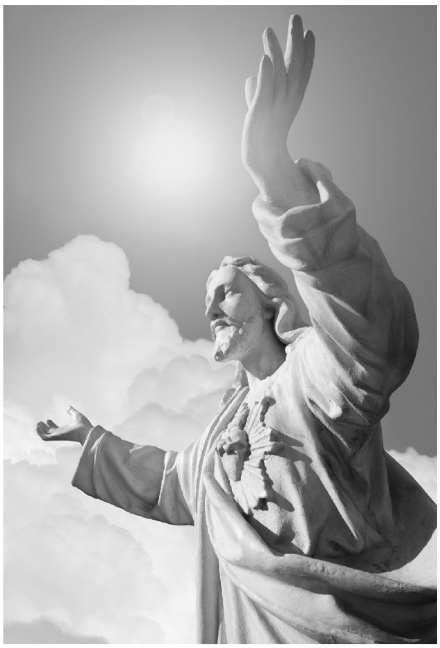
5) **다섯째 단원**(12, 14-13, 18)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정진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2. 서간의 중심신학

히브리서의 중심 신학은 대사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이다.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만 그리스도에게 "대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대사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이들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곧,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재자이다.

1)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사제는 일년에 한 번, '속제의 날'이 되면 백성과 자신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전 뜰에서 속죄 제물로 쓰일 수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대야에 담아 성소를 지나 휘장이 쳐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 백성과 자신의 죄를 뒤집어쓴 희생 제물의 피를 뿌



림으로서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사제의 역할은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고 히브리서에서 가장 명료하게 밝혀진다. 수난 끝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동시에 사람들의 맏이로서, 그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신다. 이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이심이 분명해 진다.

그분께서는 아론의 사제직을 이어 받으시기는 하지만, 아론의 것을 뛰어 넘는다. 시편 110편의 증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멜기체덱의 뒤를 잇는' 새로운 부류의 사제를 세우기를 원하셨다(히브 7, 1-28 참조).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진정한 희생이다. 그리고 이 희생이야 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는 유일한 참제사이다.

2) 유일한 희생제사

사실 구약의 제사는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관습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그것은 인간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정화할 수도 없었고(히브 9, 9; 10, 1-4), 사람을 하느님에게까지 들어 올려 줄 수도 없었다.

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는 완벽한 희생이다(9, 1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인성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5, 8; 10, 9-10). 그와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하느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천상 사제가 되시고(9, 24) 죄를 없애는 정화를 실현하셨으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다(9, 15; 13, 20).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주석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848-856/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가톨릭대사전』 권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907-9908.

Ⅸ. 성주간

사순 시기는 예비신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한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보속을 통하여 여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여 파스카(부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가운데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주간'이라 한다. 성주간은 사순 제6주일인 '성지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 성야 전 '성토요일'까지 주님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또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부활 성야 미사에 이르는 파스카 삼일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로써, 주님 수난과 부활을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고 재현하며, 전례주년의 중심이자 절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기념하므로 한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전례가 거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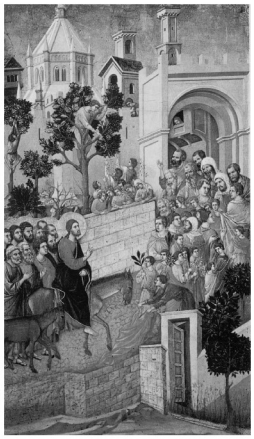
※ 파스카 삼일(성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의 파스카 구원의 신비 과정을 거행하는 연중 가장 절정에 달하는 날들이 있는 이 시기를 '파스카 성삼일'(Triduum pasquale)이라 부른다. 흔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예수 부활 대축일이다. 성삼일은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죽음으로 저승에 머무시는 성토요일, 그리고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이 그것이다.

전례 전통에 따르면 축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 부활 성야 예절은 성토요일의 예절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의 전야 예절이듯이, 또한 주님 만찬 미사는 성금요일의 전야(Vigilia)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절이다.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로 전례력으로는 사순 시기를 마치고, 저녁 주님 만찬 미사로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되어 부활 대축일 저녁기도로 성삼일이 종결된다. 하지만 사순 시기를 성삼일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사순 시기는 성주간과, 특별히 파스카 성삼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자 연결점이며, 성삼일은 사순 시기의 마지막 절정과 부활 대축일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며, 그래서 성삼일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의 정점으로서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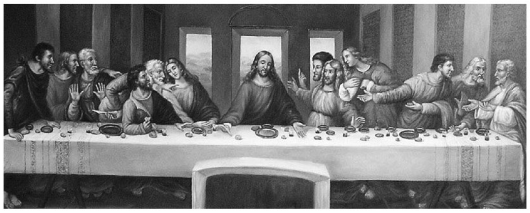
주님 수난 성지주일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주일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혹은 올리브 나뭇가지를 예수가 가는 길바닥에 깔았던 것에서 연유한다. 신자들에게 있어 성지주일이 갖는 의미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고자 하는 결심의 시기이다. 이날 사제는 붉은색 제의를 입고 성지를 축성하여 신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성지는 예수께 대한 존중과 십자가 수난으로부터 승리를 상징한다.

또한 모든 교회 내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기념하며 중심 미사 전 행렬이나 입당식을 거행한다. 행렬시 신자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죽음에 처할 분이지만 그 죽음을 쳐부술 왕이며, 파괴될 성전이지만 새로이 건설될 서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한다. 이후 미사는 개회기도 없이 본기도부터 시작한다. 복음에서는 주님의 수난복음이 낭독된다. 성주간 월요일에는 「예수의 죽음」이 화요일에는 「제자들의 배반」이 복음을 통해 다루어지고 수요일에는 「예수가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하는 복음이 읽힌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예수께서 수난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날이다. 흔히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성목요일을 지칭하는 것은 이같이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당신의 사제직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는 성유축성미사가 저녁에는 주님의 만찬미사가 봉헌된다. 성유축성미사는 주교좌 성당에서만 거행되고 주교는 교구 사제들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유를 축성한다. 이 미사는 주교와 사제단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사제들은 이때 주교에 대한 순명을 약속한다. 축성된 성유는 각 본당으로 가져가게 되며 세례, 견진, 병자성사 시 사용된다.

저녁에 봉헌되는 주님 만찬 미사는 예수의 최후 만찬을 재현한다. 이 미사 전 감실은 비워지고 성체가 모셔지는 장소는 검소하게 장식된다.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 거행되는 '발씻김 예식'은 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영성체 후에는 준비된 감실로 성체를 모시고 가는 예절이 이어지는데 이후 본 제대는 벗겨지고 성전 내 십자가는 가려진다. 신자들은 다음날 예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감실에서 밤을 새워 성체조배를 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참회의 날. 그리고 1년 중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주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원인인 우리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날로서 모든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을 통해 제를 지키며 주님의 죽으심과 수난 신비 속에 더욱 깊이 참여한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가 금지되며 대신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수난예식이 거행된다. 전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거행되는데 사목 상 이유로 더 늦어질 수 있으나 9시 이후 전례는 금하고 있다. 신자들은 십자가 경배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고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흠숭한다.

성토요일

'망부활'(望復活) 또는 '부활성야'라고 불리는 성토요일은 부활주일 전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망부활이라는 말은 성금요일과 부활대축일을 연결하면서 밤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어 기다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제대는 벗겨진 채로 있으며 이날까지 미사와 고해, 병자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는 금지된다. 성주간은 성토요일 부활성야 예식 전까지를 말하며 부활성야 예식부터는 부활시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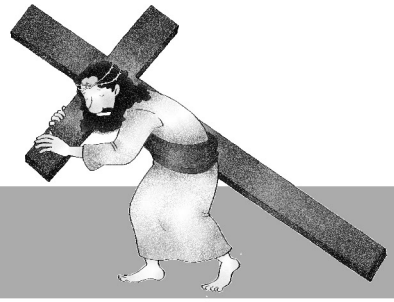
2002년 새 〈미사경본〉은 부활성야가 파스카 삼일의 정점이자 '모든 전야제의 어머니'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밤이 시작된 다음에 '부활성야 예식'을 시작하고 주일 새벽 전에 마치도록 규정지었다. 부활성야 미사전례는 총4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부활초를 켜는 예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2부는 신 · 구약 성경의 구원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의 전례로 구성되며, 제3부는 세례예식 혹은 세례 갱신식이 거행된다. 끝으로 제4부 성찬례로 본 예식이 마감된다.

참고문헌

「성주간 : 전례분과를 위한 성주간 예절 준비 및 해설」, 수원교구 복음화국, 2009/ 「성주간(개정시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성주간.성삼일 예절 해설서」,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2007/ 「성지주일 · 성삼일 예절 준비와 해설」, 가톨릭신문사, 2009

5 판공문제

사순 제5주일 "바로 이 때를 위하여"



1. 사순 제5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주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파스카의 삶
② 예루살렘의 멸망
③ 새 계약
④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2.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포한 하느님의 "새 계약"(예레 31, 31)은 어디에 새겨진 것을 말하는지 간단히 쓰시오.

3.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편지를 사도 바오로가 쓴 것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워 정경으로 확정짓지 못했다.
②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히브리서가 바오로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을 부정했다.
③ 히브리서는 사제직의 근본적인 특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
④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의 제사를 계승하는 것으로, 옛 계약과 사제직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4.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재자이다.
② 이스라엘 대사제의 역할은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고 히브리서에서 가장 명료히 드러난다.
③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론의 뒤를 잇는' 새로운 부류의 사제를 세우기 원하셨다.
④ 대사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은 진정한 희생이며,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는 유일한 참 제사이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
②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
③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천상 사제가 되시고, 죄를 없애는 정화를 실현하셨으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다.
④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당신 스스로 계획하신 것으로, 인류에게 주는 무상의 선물이다.

6~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사순 시기는 예비신자들이 (6.)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한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보속을 통하여 여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여 (7.)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8. 성주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부터 시작하여 '성토요일'까지 주님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②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이다.
③ 전례주년의 중심이자 절정이다.
④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기념하므로, 가장 엄숙하고 소박한 전례가 거행된다.

9. 파스카 삼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파스카 삼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가리킨다.
② 주님 만찬 미사는 성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절이다.
③ 부활성야 예절은 성토요일 예절이다.
④ 성 목요일 성유축성 미사로 사순시기가 끝나므로, 사순시기를 성삼일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10. 사순시기 가운데 핵심인 '파스카 삼일' 전례예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의 만찬 미사와 세족례
② 십자가 경배 예절
③ 부활성야 미사 중 빛의 예식
④ 성유축성 미사

답안지	1	2	3	4	5
	6	7	8	9	10



2012년 부활 판공 경시대회를 위한 문제

50문항

소속		성명		연락처	

1.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역사의 시작은 무엇인가?( )

① 부활 ② 재림
③ 창조 ④ 강생

2.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하느님께서는 혼돈으로부터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으신다.
② 최초 부부의 창조와 그 부부가 살아야 할 환경을 서술한다.
③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써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④ 온갖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로 하와를 빚으신다.

3. 요한 복음서에서 하느님 창조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표상되는 것은?( )

4.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하고,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새로운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각각 쓰시오.(,)

5.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그의 모든 활동과 삶이 신앙에 의해 좌우되었다.
② 주님께 대한 믿음에 앞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③ 인간적인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에도 하느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하였다.
④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6.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대 축제는 무엇인가?( )

① 과월절 ② 유월절
③ 초막절 ④ 안식일

7.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맺은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새로운 약속 곧 신약은 '시나이 산 계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② 모세가 백성 앞에 내놓은 하느님의 말씀은 계약의 말씀으로, 주된 내용은 십계명이다.
③ 시나이 산의 계약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다.
④ 시나이 산 계약의 법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종교생활의 핵심적인 정신을 이룬다.

8.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갈대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된 사건은 신약의 교회에서 무엇의 예표가 되는지 고르시오.( )

① 성령강림 사건 ② 12제자의 파견
③ 세례 ④ 성찬례

9.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약속에서 계약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10.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쌍방 의무인 시나이 계약이 체결되는 순서(탈출기 20장 참조)를 올바로 연결 하시오.(① → → → → ⑤)

① 전문(이스라엘과 계약을 세우실 분은 주 하느님이심을 강조한다) → ② 축복과 저주(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지만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린다는 내용) → ③ 기본 계명(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느님인 주님께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 → ④ 역사적 서언(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시키셨다는 사실을 상기) →⑤ 계약체결(희생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의식을 통해)

11. 탈출기 12장에서 소개하는 '파스카 축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이 축제를 '거룩한 밤새움'의 축제로 지내고, 이렛날 동안 '누룩 없는 빵의 축제(무교절)'를 지냈다.
② 한 가정 또는 두서너 가정이 하느님 앞에서 하나의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다.
③ 식사 중 구운 메추리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
④ 식사를 하며 이집트 탈출을 회상하고,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에 참여한다.

12. 파스카 삼일의 정점이자 '모든 전야제의 어머니'로 불리는 전례 예식을 쓰시오.

( )

13.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이 기도는 참으로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며,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② 주님의 기도는 성경의 핵심이며,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③ 주님의 기도는 3개의 청원과 7개의 감사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④ 이 기도의 전반부 3가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청원기도이다.

[14 ~ 16] 전통적인 기도 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형태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4. 소리 기도 •
15. 묵상 기도 •
16. 관상 기도 •

• ㉠ 사고력, 상상력, 감정, 의욕을 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
• ㉡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바치는 몸과 정신이 결합된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는 기도
• ㉢ 예수님께 신앙의 눈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

17. 구약의 세례 예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노아의 방주
②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
③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감
④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

18. 예수 그리스도가 맡긴 대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펼쳐야 하는 모든 사명,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임무는 무엇인지 쓰시오.(　　)

19. '메시아'라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이 용어는 히브리어 '마시아'에서 유래한다.
② 이 동사의 뜻은 '기름 바르다', '기름을 붓다'이다.
③ '메시아'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크리스토스'이다.
④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의 도유된 왕을 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20.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파스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신약성경은 최후의 만찬 기사를 통해, 파스카를 구약성경과 다른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킨다.
② 공관복음사가들과 바오로 사도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 과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이별의 만찬에서 '새로운 파스카'가 탄생했다고 전한다.
③ 요한 복음서는 과월절 다음날 최후의 만찬이 거행됐다고 전하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묘사한다.
④ 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죽음을 '새로운 파스카'로 이해한다.

21. 오늘날 전례상 '새로운 파스카'가 거행되는 곳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세례성사
② 주님의 날 인 주일
③ 모든 미사(성체성사)
④ 모든 신심행사들

22. 창조에 있어서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협력에 대한 가르침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한 상태로 나갔다.
②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③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협력이 필요치 않으시다.
④ 인간은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3. 원죄의 연대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 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된다.
② 원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③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공동체의 죄로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④ 원죄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24. 구약성경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거룩한 하느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로 시작되었다.
②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다.
③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④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은 기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25. 다음 중 준성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성당봉헌　　② 구마예식
③ 독서직 · 시종직 수여식　　④ 미사성제

26.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큰일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신 당신 어머니에게 기도문을 배우셨다.
② 당신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다.
③ 예수님께서는 되도록 밤에, 여럿이, 산으로 피해 자주 기도하셨다.
④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모범적 기도는 주님의 기도이다.

27.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인 양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양심은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지성소이며, 여기서 인간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② 인간의 윤리성은 양심에 기초하며, 오로지 양심이 인간 행위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③ 양심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며, 언제나 바르고 진실하다.
④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⑤ 인간은 양심이 하고자 하는 행위나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수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28. 복음서가 권고하는 자선의 실천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자선의 실천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② 남들이 바라는 대로 아낌없이 행해야 한다.
③ 자신이 가진 것이 넉넉할 때, 궁핍한 형제들에게 베풀 의무가 지워진다.
④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베푼 것이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이다.

29.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결과를 모두 고르시오.( )

① 인간의 첫 범죄이자, 불순종의 비극적 결과로 죽음이 인류 역사 안에 들어왔다.
②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연관되지는 않는다.
③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된다.
④ 원죄는 짊어진 죄이며 상태가 아니라 행위이다.

[30 ~ 32] 다음은 복음화의 요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찾아 연결하시오.

30. 말씀의 선포 •
• 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 · 고통 · 죽음 · 부활 · 인류의 구원을 통해 완성된 것을 믿을 때 현세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31. 생활의 증거 •
• ② 성사로 말미암은 내적 변화와 새 생활은 그 도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체성사의 생활화는 복음화의 정점을 이룬다.

32. 성사 생활 •
• ③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생활 안에서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가 선포하는 사랑은 추상성을 면치 못하며,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33.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것은?(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통해서 인류의 결정적인 속량을 완성하는 '( )의 희생제사'이며(1코린 5, 7),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 )의 희생제사'이다.(1코린 11, 25 참조).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는 유일하며,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고 초월한다.

① 무한 – 영원　② 파스카 – 새로운 계약
③ 십자가 – 파스카　④ 파스카 – 영원

34.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백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새로운 백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 결정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② 축성된 사제와 율법 교사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백성에 속한다.
③ 새로운 백성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기쁜 소식의 선포를 받아들인 이들이다.
④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새로운 백성이다.

35. 수도 성소를 이루는 3대 복음적 권고를 쓰시오.
(, ,)

36. 대죄와 소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
② 대죄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은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이다.
③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④ 소죄는 성화의 은총을 손상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친교와 행복은 박탈한다.

[37 ~ 40] 그리스도인 단식 실천의 4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37. 신학적 측면 •
38. 실존적 측면 •
39. 임상적 측면 •
40. 참회적 측면 •

• ① 죄에 대한 참회와 하느님께로 향한 회개 그리고 마음의 정화
• ② 자신의 삶을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살고자하는 선택과 투신
• ③ 성령에 힘입어 유지되는 육체의 신화의 표지이며, 부패할 운명에서의 탈출
• ④ 음식의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

41. 다음은 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을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49항 참조)

42. 신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믿음이 있으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② 신앙의 은총은 마음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계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한다.
③ 신앙이 인간적인 응답이 되려면, 인간이 하느님을 무조건 믿고 응답해야 한다.
④ 신앙 안에서 마지막까지 항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야 한다.

43. 모든 하느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 말씀 해석 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다가오심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　　)

44. 성령을 통해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계시를 신자들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교회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쓰시오.
(　　)

45.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파스카'는 무엇입니까? (　　)

46. "하느님 모상에 탁월한 표징"(사목 17항)으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다스림으로써 인격의 존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 혹은 의지는 무엇인지 쓰시오.
(　　)

47.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인간의 (　　)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　　) 하느님의 참행복에 대한 소명 안에서 완성됨으로, 인간은 마땅히 이러한 완성을 자유롭게 지향해야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 행위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양심이 증명하는 선을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항 참조).

48.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은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 되었다.
②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다.
③ 속량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특히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다(이사 53, 7~8).
④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1요한 4, 10)

49.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과 그분의 부활한 육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성경이 증거하듯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② 빈무덤 자체가 부활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
③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린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④ 부활하신 그 육신은 수난의 흔적을 아직 지니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신이 아니다.
⑤ 부활하신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지상에 매여 있지 않고, 성부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

50. (　　)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　　,　　)

수원교구 50주년 대주제 :
(　　)의 땅, (　　)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는 **완벽한 희생**이다(히브 9,1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인성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5,8; 10, 9-10).
그와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하느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천상 사제가 되시고(9,24)
죄를 없애는 정화를 실현하셨으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다(9,15; 13,20).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명(세례명) _____ 전화번호 _____

본 당 _____ 구역 · 반 _____

점 수 _____

2012 사순 · 부활 판공문제집

믿음의 문

발행일 2012년 2월 22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문희종
기획 · 출제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부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전화 031-244-5035 **FAX** 031-244-7224
E-mail evan@casuwon.or.kr **Homepage** www.casuwon.or.kr

디자인 · 인쇄 (주)하상출판사
주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전화 031-243-1880(대) **FAX** 031-248-4842
E-mail hasang@casuwon.or.kr **Homepage** www.casuwon.or.kr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라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